

피의자신문 통역 담화분석을 통해 본 비전문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 양상: 러시아어 사례를 중심으로

이지은 · 홍서연
(이화여대 · 단국대)

1. 서론

발화 수정(repair)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언어적 현상으로 일상대화에서 제도담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이 의도한 발화와 실제 발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수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자기발화수정은 메타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기능이자 언어적 전략이다(이현주 2009: 31). 자기발화수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모국어 사용자 간의 대화, 모국어 사용자와 비모국어 사용자 간의 대화, 언어학습자 대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교육 및 언어병리 차원에서도 수정 현상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통역학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발화의 수정은 발화 주체와 수정 주체에 따라 자기발화수정(self-repair)과

타자발화수정(other-repair)으로 나뉘는데, 본고는 검찰의 외국인 피의자신문 통역에 참여한 비전문가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통역 담화에서 자기발화수정이라는 언어학적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통역인이 한국어와 외국어로 통역할 때 대응전략(coping strategy)으로서 발생한 수정현상을 고찰한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피의자 진술이 얼마나 정확하게 통역되는가 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당 기관의 수사 효율성, 공정성 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한 이유로 사법통역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범은 정확성인데, 실제로 검찰 통역인이 수정전략을 통해서 정확성이라는 규범에 어떻게 근접해 가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형사 피의자신문은 형사사법 절차상 중요한 증거수집 단계로 매우 정확하고 윤리적인 통역이 요구된다(이지은 2012, 2017). 전문성을 갖춘 통역인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외국인 피의자신문에 통역기술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가 통역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간 사법통역 담화분석 및 설문조사에 기반한 선행연구는 사법통역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결여한 통역인으로 인한 통역 품질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었다(이유진 2019; 이지은 2012, 2017; 홍서연 2019; Lee 2014, 2015, 2017). 본고는 사법통역 중에서도 연구 자료 접근성 문제로 비교적 담화분석 연구가 미진한 편에 속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 통역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먼저 자기발화수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 연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결과를 논하겠다.

2. 이론적 배경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에 관한 본 연구는 담화분석 기법 중에서 대화분석(Conversational Analysis)을 이론적 틀로 삼는다. 언어 및 비언어 행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대화 현상에 초점을 맞춘 대화분석 연구는 문제원인(trouble source)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주목해왔다. 발화 수정 현상은 수정을 개시하고 완료하는 주체별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화자 자신이 개시하여 자신이 수정하는 ‘자기주도 자기수정’(self-initiated self-repair), 화자가 상대방인 타자에게 수정을 유도하는 ‘자기주도 타인수정’(self-initiated other repair), 타자가 화자에게 수정을 유도하는 경우 ‘타인주도 자기수정’(other-initiated self-repair), 타자가 수정을 개시하고 완료하는 ‘타인주도 타인수정’(other initiated other repair)이 여기에 해당한다(Schegloff, Jefferson and Sacks 1977). 이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는 자기발화수정은 ‘자기주도 자기수정’에 해당한다.

수정이 일어나는 위치 즉, 시점에 따라 수정 주도 주체도 달라진다. 본고에서 다루는 자기발화수정(이하, 자기수정)은 문제 원인과 동일한 말차례 내 수정과 문제원인 말차례 종료 직후 말차례 전환공간(transition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수정에 제한된다. 자기수정은 문제 원인(발화오류)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감지되는 순간 휴지나 망설임이 동반되며 발화가 잠시 중단된 후 편집 및 수정이 이루어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Levelt 1983). 자기수정은 발화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수정 행위(내적수정)와 산출된 발화 오류를 수정하는 행위(외적수정)로 구분할 수 있다(이현주 2009: 36). 내적수정은 발화오류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화자가 내적으로 오류를 감지하여 일어나는 수정유형으로 주저어 ‘어’, ‘음’ 등의 편집용어나 일부 내용 단순 반복 등의 표지가 사용되고, 외적수정은 겹으로 드러난 발화오류를 수정하는 유형으로 발화 흐름이 중단되고 수정이 이루어진다(Postma and Kolk 1993; 이현주 2009: 36에서 재인용).

한편, 레벨트(Levelt 1983)는 자기수정이 화자가 자기 발화의 언어적 오류를 수정하는 기능과 함께 발화를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고 자기수정 유형을 오류 수정(error repair)과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수정(different information repair), 그리고 적절성 수정(appropriateness repair)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오류 수정은 주로 음운, 어휘, 문법, 통사 오류에 대한 수정인 반면, 적절성 수정은 명료성을 높이고 더 논리적인 언어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Levelt 1983).

통역사의 자기수정 역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며, 통역 규범 준수 노력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Magnifico and Defrancq 2019: 362). 또한 자기수정은 오류 수정인 동

시에 통역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자기수정을 다룬 통역연구는 통역방식에 따라 두 부류로 구분 가능하다. 하나는 주로 동시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수정에 관한 연구이고(이미경 2012; Besien and Meuleman 2004; Dailidénaité 2009; Kalina 1998; Magnifico and Defrancq 2019; Petite 2005; Shen and Liang 2019), 다른 하나는 대화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수정 및 타자수정에 대해 체면전략 및 참가자 역할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Biemicka 2019; Lee 2013; Nakane 2014; Wadensjo 199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원천메시지 이해 단계에서 또는 목표메시지 생산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통역사는 자기수정을 시도하는데, 통역 능력과 스타일 등에 따라 수정 양상과 빈도가 달라진다(Besien and Meuleman 2004; Petite 2005). 통역언어 방향도 오류와 수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artłomiejczyk 2004, 2006; Dailidénaité 2009). 전문통역사들은 AB 동시통역에서는 문법, 억양, 어휘, 강세 오류를, BA 동시통역에서는 이해관련 오류 문제를 주요 오류로 꼽았다(Bartłomiejczyk 2004). 다로 램버트 파브로(Daró, Lambert and Fabbro 1996)의 연구 결과를 보면, BA 동시통역보다 AB 동시통역에서 심각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오류 유형으로는 잘못된 시작(false start), 수정오류, 발화오류, 휴지 등이 있었다. 통역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BA 동시통역에서 AB 동시통역보다 더 많은 오류 수정이 있었고, 수정 유형으로는 적절성 수정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Dailidénaité 2009). 통역발화 시 자기수정을 분석한 칼리나(Kalina 1998)에 따르면 수정 유형 가운데 기존 발화를 다른 발화로 대체하는 명시적 수정인 ‘대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다른 통역연구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통역사가 반드시, 또는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Dailidénaité 2009). 수정이 유창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사가 자기수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통역사를 대상으로 한 이미경(2012)에 따르면, 시간 제약이 큰 동시통역에서 동시통역 오류 중 약 10%의 경우만 수정이 이루어졌다. 또 수정 위치도 문제 원인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라 이후 적절한 시점에서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Dailidénaité 2009: 17). 또한 통역사의 체면전략도 수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Lee 2013, 2015, 2017; Nakane 2014).

학생들의 순차통역 자기수정을 연구한 국지연(2016)은 언어장애 치료를 위한 라잘과 콩뛰르(LaSalle and Conture 1995)와 칼리나(Kalina 1998) 연구의 통역 자기수정 유형을 변용하여 학생들의 한독 순차통역 자기수정 유형을 분석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국지연(2016: 11)은 외적수정을 보완과 대체, 내적수정은 휴지, 단순 반복과 음을 끄는 현상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보완 수정은 선행 발화를 한 후에 내용을 재구성하여 발화하거나 발화 중간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며, 대체 수정은 발화 중에 발음, 문법 혹은 어휘를 다른 내용어로 대체하는 것이다(국지연 2016: 11). 휴지는 채워진 휴지와 채워지지 않은 휴지를 포함하며, 단순반복은 단어 전체 또는 일부를 반복하여 발화를 이어가는 현상을 가리킨다(국지연 2016: 11). 통역전공 학생들의 순차통역에서는 내적수정(296건)이 외적수정(47건)보다 현저히 많이 나타났으며, 자기수정의 발생 위치가 대부분 문장 내에서 이루어져 유창성보다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통역에 임하였다(국지연 2016: 20).

본 연구는 포스트마와 콜크(Postma and Kolk 1993) 및 라잘과 콩뛰르(LaSalle and Conture 1995)의 수정유형을 기반으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용한 이현주(2009)의 수정유형을 활용할 것이다¹⁾. 본 연구에 활용된 통역담화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대화통역이므로, 한국어 통역담화 분석에는 이현주(2009)의 분류를 활용하되, 러시아어 통역 담화 분석을 위해서는 러시아어의 문법 및 어휘의 특성을 수정 유형 분류에 반영하였다. 또한 통역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 휴지를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분석 기준으로 삼은 자기발화수정 유형은 아래 <표 1>과 같고, 수정유형에 포함되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국지연(2016)에서는 보다 명시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외적수정 분류가 보완과 대체로 단순화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통역인의 다양한 수정전략에 대한 이유와 목적까지 고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표 1>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 유형 분류

수정 유형	하위 유형	세부분류	설명
외적 수정	수정 반복	재구성 반복	의미적 차이는 없으나 형태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정
		삽입 반복	내용 보완하여 수정
	대체	내용어 대체	어휘 내용 수정
		기능어 대체	조사, 활용어미 수정
내적 수정		간투사	‘어’, ‘뭐’, ‘음’ 등의 삽입어
		단순 반복	어휘, 구, 절의 언어 단위를 그대로 반복
		휴지	문장 중간에서 발생하는 2초 이상의 휴지

외적수정은 재구성 반복, 삽입 반복으로 이루어진 수정 반복과 내용어 대체와 기능어 대체로 구성된 대체로 분류된다. 재구성 반복은 통역인이 앞선 말차례에서 발화한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이지 않고 형태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이현주 2009)로, 통역인이 문장을 완결한 이후에라도 선행 말차례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반복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다. 삽입 반복은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여 반복하는 수정행위로, 발화 내용을 더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의 구성 성분(주어, 목적어, 서술어, 특정 어휘, 절 등)을 삽입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경우이다(이현주 2009). 본 연구에서는 원발화에 없으나 통역인이 새로운 정보를 임의로 삽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외적수정의 대체는 이미 발화한 단어나 어휘를 보다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어 대체와 조사나 어미 등을 대체하는 기능어 대체로 구분하였다(이현주 2009).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역인이 이미 발화한 어휘를 보다 적절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내용어 대체로 보았고,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문법적 요소(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격변화 및 성과 수의 일치)만 수정하는 경우는 기능어 대체로 분류하였다.

내적수정은 간투사, 단순반복, 휴지로 분류된다. 간투사는 ‘어’, ‘뭐’, ‘음’ 등과 같은 담화표지를 통해 다음 발화 구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채워진 휴지(filled pause)를 의미한다. 단순 반복은 외적수정의 수정 반복과 달리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앞선 발화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이다. 휴지는 문장 중간에서 발생하는 2초 이상의 채워지지 않은 휴지(unfilled pause)만 포함시켰는데, 통역인의 말차례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 휴지는 통역인이 말끝을 흐

리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살인 사건의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검찰조사 영상녹화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검사와 피의자의 문답으로 구성된 약 157분 가량의 녹화자료는 연구를 위해 한러 통역사인 연구보조원이 1차 전사하고, 연구자가 확인, 수정하였다. 담화분석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전사하였고,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통역한 내용에 포함된 문법적, 어휘적 오류도 그대로 전사하였다. 상세한 전사체계 부호 대신에 일반적인 문장부호를 사용하였고, 현재 화자와 다음 화자의 말이 거의 연속해서 위치하는 경우에는 ‘=’, 현재 화자가 말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한 지점은 ‘[’을 사용하여 겹치는 발화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휴지는 ‘()’로 표시하고, 그 시간(초)은 괄호 안에 기입하였다. 하나의 말차례에서 여러 가지 수정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수정유형은 밑줄로 표시하였고, 그 이외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수정유형은 참조할 행을 숫자로만 기술하였다.

전사자료를 바탕으로 도착어별, 수정유형별로 자기수정의 발생 횟수를 분석하고 담화분석을 통해 자기수정의 원인과 목적을 파악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동일한 말차례에서 다양한 수정전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수정유형으로 구분하여 집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를 위해 러시아어 통역에 대한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화에 나타나는 관련자들의 이름은 익명화하였으며 대화에 등장하는 아파트의 이름 또한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바꾸었다. 대화에 언급된 화자를 구분하기 위해 검사는 ‘검’, 검찰 주사보는 ‘검주’, 통역인은 ‘통’, 피의자는 ‘피’로 약어 표기하였다. 분석 대상인 통역인의 자기수정이 포함된 말차례는 ‘→’으로 표시하였다.

2) 재판확정 후 검찰에 피의자 동의서를 포함하여 연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설명한 공문을 보내어 2013년에 영상자료를 입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러시아어 통역인은 언어 능력은 물론 통역 능력이 부족한 비전문가 통역인이다. 자세한 통역인의 인적사항은 알려진 바 없으나 영상녹화자료에서 신문에 앞서 통역인의 경력에 관해 질문하는 대목이 있어서 언어학 전공으로 러시아 소재 대학에서 유학하였고, 통역인 거주 지역의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 통역한 경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통역인의 러시아 유학경력 등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통역 품질의 심각한 문제를 알지 못하고 통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³⁾. 부족한 통역기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통역인이 통역을 해나가는지 일종의 대응전략 중 하나로 자기수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4. 분석 결과

검찰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과정의 통역담화를 분석한 결과 자기수정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대화 참여자별 말차례 횟수를 살펴보면, 검사는 335회, 피의자는 540회 말차례를 취했고, 통역인은 검사의 말을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 594회, 피의자의 말을 한국어로 통역하면서는 284회 말차례를 취했다. 통역인의 러시아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검사의 질문이 피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통역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와 러시아어로 곁대화(side talk)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검사의 발화에 비해 피의자와 주된 수정 주체인 통역인의 말차례와 발화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역인의 수정양상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통역인의 오역으로 인해 수정이 발생한 경우 통역인의 발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가늠하기 위해 통역의 원발화에 해당하는 검사나 피의자의 발화를 앞선 말차례에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고자 오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문법적인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불완전한 문장으로 통역하는 경우 그와 유사하게 한국어로 번역하고자 했고, 이러한 오류를 번역으로 드

3) 이 통역인의 통역 문제는 Lee(2017)와 Lee and Hong(2020)에서 다룬 바 있다.

러낼 수 없는 경우 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추가하였다. 아래 분석 자료 예시에서 자료 확인이 용이하도록 숫자로 행을 표시하였다.

4.1 한러 통역에서 자기발화수정 유형

한러 통역에서 나타난 자기수정은 외적수정이 84건(48.6%), 내적수정이 89건(51.4%)으로 나타났다. 수정 유형별로 그 빈도수를 살펴보면, 내적수정에 포함되는 단순 반복(45건)과 휴지(44건)의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났고, 외적수정에 포함되는 내용어 대체(41건), 삽입 반복(23건), 기능어 대체(14건), 재구성 반복(6건) 순서로 나타났다.

AB 순차통역을 연구한 국지연(2016)의 연구에서 전문 통역교육기관 학생들의 통역 분석결과 외적수정이 전체 수정 가운데 13.7%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외적수정의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전문통역사가 아닌 비전문가 통역인이 명시적인 외적수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자기수정 유형 순서대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1 외적수정

재구성 반복은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통역한 뒤에 자신의 통역 내용을 형태적으로 재구성하여 반복하는 수정유형으로 한러 통역에서 총 6회 관찰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통사적 지식이 부족한 통역인이 러시아어 문법을 수정하고, 문장을 재구성하여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에 이루어진 수정이었다.

[사례 1] 재구성 반복

- 1 김 경찰관은 무슨 이유 때문에 왔대요?
- 2 통 → *Полиция почему была? Полиция, как она сказала? Как милиция сказала почему? 경찰관은 왜 왔어요? 경찰이, 어떻게 말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말했어요, 왜?*

위의 [사례 1]은 피의자와 떨어져 살고 있던 전남편의 집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 대한 검사의 질문을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상황이다. 통역인은 이러한 검사의 질문을 여러 차례 수정하여 통역하였다. 2행에서 통역인은 ‘경찰이 왜 왔어요?’ 라고 말한 뒤에 말차례 전환 가능지점에서 ‘경찰이, 어떻게 말했어요?’ 라고 수정하면서 내용어(동사)를 대체하여 통역하였다. 그리고 나서 앞서 통역한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재구성 반복하며 ‘경찰이 어떻게 말했어요, 왜?’라고 통역했다.

통역인은 검사의 질문 내용과 낱아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말차례 전환지점에서 자신의 통역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통역인의 외국어 능력과 통역기술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수정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 삽입 반복은 22회 관찰되었는데, 통역인은 자신이 했던 오역을 만회하거나 이전 경찰 수사과정에서 통역인으로 참여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삽입 반복하여 통역과정에서 검사가 의도와 상관없이 질문의 특정 내용이 더 명확해지거나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사례 2] 삽입 반복

- 1 김 나한테 분명히 한 번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 2 통 → *Вы говорили, вы отвечали один раз полиция была, не два раза. Сначала вы раньше=*
당신은 경찰이 한 번 왔었다고 말했지, 대답했지, 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당신이 예전에
- 3 피 *=На дэу один раз. На дэу.*
대우에 한 번이요. 대우에.
- 4 통 *Это не важно. дэу, чжугонг это не важно. Просто когда полиция один раз был отвечали. Поэтому я тоже переводил один раз.*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우, 주공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경찰이 한 번 왔을 때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 번이라고 통역했어요.
- 5 피 *На дэу один раз, да.*
대우에 한 번이요, 네.

- 6 통 저는 제가 말할 때 경찰관이 한 번 왔다는 것은 대우 아파 트에 있을 때 경찰관이 한 번 왔다 그 말이었다고.

[사례 2]에 앞서 피의자는 자신이 전남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경찰이 한번 방문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에 이를 반복하자 검사가 이를 확인하고 있다(1행 참조). 통역인은 피의자가 ‘말했다’라고 통역한 뒤에 바로 ‘대답했다’라고 내용어(동사)를 대체하여 수정하였다(2행 참조). 이어서 통역인은 검사의 발화에는 없지만, 이전 발화에서 피의자가 ‘두 번’이라고 진술했던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삽입하여 반복함으로써 검사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전 통역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피의자는 한 번이라고 진술했지만, 통역인이 여러 번의 말차례에 걸쳐서 피의자와 결대화(side talk)를 나누면서 그 횟수를 혼동하여 통역하는 바람에 피의자의 진술과는 다르게 검사에게 전달되었다. 결국, 위의 사례에서 통역인은 검사의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이 오역을 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강조하기 위해 이전에 했던 피의자의 진술을 삽입 반복하는 수정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역인은 자기 점검을 통해 원발화와 자신이 했던 통역 내용을 비교하여 음절이나 단어를 교체하는 내용어 대체를 통한 수정 전략을 자주 사용했다. 내용어 대체는 통역인의 한러 통역 담화에서 관찰된 외적수정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했던 수정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통역인에게 수정을 유도(타인주도 자기수정)하거나 피의자 본인이 직접 수정(타인주도 타인수정)을 한 뒤에야 비로소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3] 내용어 대체

- 1 검 2009년 5월 달에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실 없어요?
 2 통 → В 2009 году в апреле вы не убили, а нет, ударили свекровь?
 2009년도에 4월에 당신은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시어머니를 때렸어요?
 3 피 Нет. Я её не ударяла.
 아니요. 나는 그녀를 때리지 않았어요.

[사례 3]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는지 묻고 있다. 그러나 통역인은 ‘죽이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убить)를 발음이 비슷한 ‘때리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ударить)와 혼동하여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죽였는지’라고 통역한 뒤에, 동사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바로 ‘때리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로 대체하여 수정함으로써 심각한 오역을 피할 수 있었다(2행 참조). 시어머니가 생존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오해가 쉽게 해소될 수 있었던 맥락이기는 하나 폭행과 살인은 매우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은 검사의 질문과 피의자의 진술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동사를 여러 차례 혼동하여 수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또한 통역인의 언어적 미숙함에 기인한 현상이다.

[사례 4] 내용어 대체

- 1 검 또 있어요. 2009년 3월에 베란다 난간을 잡고 있는 이나나를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2 통 → =В 2009 году на балконе она висела и вы закричала “Убей”, “Убивать”, “Она убивать”. Так вы толкнули её.
 2009년에 발코니에서 그녀가 매달려 있었고 당신이 “죽여라”, “죽이다”, “그녀는 죽이다”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당신이 그녀를 밀었어요.
 3 피 Врёт это всё.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례 4]는 조사 초반에 피의자의 혐의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학대했던 상황을 검사가 묘사하고 있다(1행 참조). 검사는 피의자가 했던 말을 직접화법으로 인용하여 묘사했는데, 통역인은 이를 ‘죽이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타동사(убить)를 사용하여 명령법으로 ‘죽여라’라고 통역하였고, 해당 동사와 동일한 뜻이지만 반복되는 행위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불완료 형태의 러시아어 동사(убивать)로 내용어를 대체하여 수정하였다. 이어서 ‘그녀는 죽이다’라고 삽입반복 수정(2행 참조)을 시도하기도 했다. 통역인은 자신이 사용했던 어휘, 즉 내용어 대체와 삽입 반복을 통한 수정을 각

각 한 차례씩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법에 맞게 통역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행에서 피의자는 통역을 통해 전달된 검사의 말이 다 거짓이라며 부정했다. 피의자는 일상회화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진술했고, 때로는 검사의 질문에 한국어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피의자가 검사의 한국어 질문을 듣고 이해한 대로 대답한 것인지, 불완전한 통역이지만 질문을 이해하고 검사의 질문에 대해 부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사례 5] 기능어 대체

- 1 검 주공아파트 705호 피의자 집이었어요? 누구 집이었어요?
7층하고 1601호는 모두 누구 집이었어요?
- 2 통 → *Вот это чей, чья квартира?*
이것은 누구의, 누구의 아파트인가요?
- 3 피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что это свекрови.*
시아머니 소유로 알고 있어요.

[사례 5]에서 검사는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말하면서 그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했으나 통역인은 다른 내용은 누락하고 소유 의문사를 사용하여 ‘이것은 누구의 아파트인지’ 질문했다. 이때 통역인은 남성형의 소유 의문사를 말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아파트라는 뜻의 러시아어 단어(квартира)가 여성명사이므로 앞서 발화한 남성형 소유 의문사를 여성형으로 수정했다.⁴⁾ 본 연구에서 관찰된 러시아어 형용사나 소유 의문사 등의 어미를 수정하는 기능어 대체 수정은 한국어 번역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러시아어 문법 오류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사례 6] 기능어 대체

- 1 검 그 내용은 2010년 4월 7일 날 피의자가 피해자 이나나를=

4) 러시아어 문법에서 명사가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경우, 형용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性), 수(단수, 복수)와 일치시켜야 한다. 위의 질문에 나타난 소유 의문사를 비롯하여 소유 대명사, 지시 대명사도 마찬가지이다.

- 2 통 =*Седьмого апреля 2010 года,*
2010년 4월 7일에,
- 3 검 떨어뜨려 가지고 사망하게 한 것이고,
- 4 통 → *Ваша, вашу дочку убивали, [поэтому]*
당신의, 당신의 딸을 죽였어요, 그래서
- 5 피 *[Нет,] я не убила.*
아니예요.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사례 6]은 소유 대명사의 격을 주격으로 사용했다가 ‘죽이다’라는 뜻의 러시아어 동사가 타동사이므로 ‘당신의’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소유대명사를 목적격으로 바꿔서 통역함으로써 기능어 대체를 통한 수정을 시도한 사례이다. 한 러 통역에서 나타난 기능어 대체를 통한 수정사례의 대부분은 통역인이 러시아어 구사력이 부족하여 문법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였다.

4.1.2 내적수정

단순 반복은 이전에 발화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로, 화자가 발화하는 중간에 후행 발화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화 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 이미 발화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역인은 러시아어로 다양한 수정전략을 사용할 만큼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아래 [사례 7]처럼 단어를 단순 반복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관찰되었다.

[사례 7] 단순 반복

- 1 검 피의자는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냈어요?
- 2 통 *Вы приехали в Корею и как вы жили до сих пор?*
당신은 한국에 와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 3 피 *Как же?*
어떻게 라니요?
- 4 통 → *Ну так. Жизнь жизнь. Просто обычно обычно жизнь.*
그런 거요. 생활 생활. 그냥 보통 보통 생활.
- 5 피 *Работала в кафе официанткой и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мужем там.*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했고 거기서 남편을 알게 됐어요.

[사례 7]에서 검사의 질문은 피의자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질문했고, 통역인은 이를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고 통역했다(2행 참조). 해당 문장이 잘 지냈는지 등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인지 피의자는 ‘어떻게’라는 말의 의미를 되물었다(3행 참조). 그러자 통역인은 그냥 보통 생활을 묻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피의자는 자신의 직업과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해서 대답했다(5행 참조). 단순 반복을 통한 수정은 모국어 사용자보다 외국인 학습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김평강 2013), 본 연구에서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단순 반복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역인의 외국어 실력이 모국어를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외국어로 다양한 수정전략을 펼치기보다는 단순 반복을 통해 자신의 통역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역인은 휴지라는 수정전략을 통해서 다음 발화를 계획하고 수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했다.

[사례 8] 휴지

- 1 검 살인사건 나기 전에 알고 있었죠?
- 2 통 → О происшествия(2.0) убийства, да? Заранее, заранее происшествие убийства об этом вы знали?
사건에 대해서(2.0) 살인의5), 네? 미리, 미리 살인사건,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 3 피 О чём?
무엇에 대해서요?
- 4 통 Ну, право детей, Нина у него.
음, 아이들의 권리, 니나가 그에게 있어요.
(피의자가 통역인을 한참 쳐다본다)

이전 발화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망한 아이의 양육권을 전 남편이 가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질문했고, [사례 8]에서는 살인사건

5) 2행에 나타난 통역인의 발화는 문법적인 실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네?’라고 번역해야 하지만, 러시아어 어순이 다르고, 휴지가 발생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부득이하게 원발화보다 어색한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발생 전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 피의자에게 질문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는 어순이 다르므로 통역할 때 단어나 어휘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해야 하지만, 통역인은 한국어 어순대로 단어를 직역한 이후에 이를 수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의 사례도 그러한 예인데, 살인 사건이라는 단어를 러시아어로 통역하면서 2초간의 휴지가 발생하였고, 이는 통역할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도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의자가 질문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물었고(3행 참조), 이에 대해 통역인이 설명하였으나 피의자는 여전히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통역인을 한참 바라보는 일이 있었다.

4.2 러한 통역에서 자기발화수정 유형

러한 통역에서는 외적수정이 62건(80.5%), 내적수정이 15건(19.5%) 발생하였고, 외적수정이 내적수정보다 4배가량 더 많이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정유형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재구성 반복(23건) > 삽입 반복(18건), 내용어 대체(18건) > 간투사(9건) > 기능어 대체(4건), 휴지(4건) > 단순 반복 (2건) 순이다.

4.2.1 외적수정

[사례 9] 재구성 반복

- 1 검 옛날에 경찰관을 물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 2 통 Вы кусали [полицию]?
당신은 경찰을 물었나요?
- 3 피 [Да, да], да. В чужом апат.⁶⁾
네, 네, 네. 주공 아파트에서요.
- 4 통 → 주공 아파트에서. 예, 주공 아파트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습
니다.

6) 조사 시작 전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의자는 일상대화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고유명사 등을 사용하여 러시아어로 답하기도 했다. 위의 사례에서도 경찰을 물었던 장소를 러시아어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한국어로 ‘주공 아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러시아어 피의자 발화는 한국어로 음차했다.

검사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의자가 경찰을 물었던 적이 있는지 질문했고, 이에 대해 피의자는 주공 아파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3행 참조). 통역인은 피의자의 대답을 ‘주공 아파트에서’라고 통역한 뒤에 말차례 전환지점에서 다시 말차례를 취해서 ‘주공 아파트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통역하면서 이전의 문장을 재구성 반복해서 통역했다.

위의 사례 이외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가 단순히 ‘Да(네)’라고 대답한 경우에도 통역인은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통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사 초반에 통역경험 등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통역인은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통역한 경험이 다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통역인은 때로는 피의자가 했던 진술을 통역한 뒤에 다시 문장을 재구성하여 통역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도 했고, [사례 9]에서 처럼 수사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덧붙여 문장을 재구성함으로써 사법통역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10] 삽입 반복

- 1 검 이진호가 집을 나가서 어디에 거주했어요?
- 2 통 *Когда он уехал, где он жил?*
그가 나갔을 때 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 중간 생략 **
- 11 피 *Нет, 15 минут, чужой апат.*
아니요, 15분. 주공아파트.
- 12 통 → 주공 아파트에서 거주했습니다. 약 15분 걸리는, 대우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남편이 거주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거주한 곳을 묻고 있다(1행 참조). 위의 대화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피의자가 검사의 질문을 확인하는 등 통역인과 피의자 간에 8차례 결대화가 이루어졌고(3행~10행), 피의자는 15분 걸리는 주공 아파트라고 대답한다(11행 참조). 통역인은 이를 통역한 뒤에 원발화에는 없지만, 당시 피의자가 살았던 ‘대우(아파트)에서’라는 말을 삽입하고 이전 통역 내용을 반복한다(12행 참조). 통역인은 피의자가 살았던 대우 아파트와 전 남편과 가족이 살았던 주공 아파트를 혼동하여 통역한 경우가 있어서인지 사건

과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삽입 반복하여 통역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피의자가 했던 진술보다 더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사례 11] 내용어 대체

- 1 검 본인이 선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 2 통 *Тогда вы должны нанимать адвоката.*
그러면 당신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요.
- 3 피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я могу бесплатного адвоката. Я могу=*
제가 듣기로, 제가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 4 통 →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선임할 수는 없고. 뭐, 국선 변호인, 무료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전 말차례에서 검사가 피의자 권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무료 변호사를 원한다고 진술했고, 검사는 [사례 11]에서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다(1행 참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는 피의자의 진술(3행 참조)에 대해서 통역인은 피의자의 진술에는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덧붙인 뒤에 ‘뭐’라는 간투사를 사용했다. 그 이후에 통역인은 피의자가 무료 변호사라고 말했지만 이를 ‘국선 변호인’이라고 통역하고, 원문에 없지만 무료로 변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한 뒤에 ‘무료 변호사’를 원한다고 내용어(단어)를 대체하여 수정했다(4행 참조). 국선 변호인 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제도로, 수사단계가 아닌 재판단계에서 적용된다. 위의 상황에서 통역인이 해당 제도가 수사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수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사례 12] 기능어 대체

- 1 검주 왜 왔는데요?
- 2 통 *Почему полиция была в вашей квартире?*
왜 경찰이 당신의 아파트에 왔어요?

- 3 피 *Потому что мы поссорились с его дочкой. Она меня оскорбляла.*
 왜냐하면 내가 그의 딸과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저를 모욕했어요.
- ** 중간 생략 **
- 35 통 → 2009년도 5월 달에 경찰관이 온 이유가 그 당시에 남편은 없었구요. 13살 되는 지니, 딸애가, 자기 딸은 아니지만, 13살 되는 지니간 젓가락, 몽둥이인지 뭔지 막대기를 들고 저를 갖다가, 저 나타샤를 찌르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복부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협박을 해서.

[사례 12]에서 검찰 수사보가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출동했던 이유를 물었고(1행 참조), 피의자는 전남편의 딸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진술(3행 참조)한 이후에 30여 번의 말차례에 걸쳐서 통역인과 피의자 간의 결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통역인이 피의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묻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역인은 피의자와 주고받은 결대화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13살 되는 지니’라고 말한 뒤에 피의자의 딸은 아니라는 추가 정보를 삽입하고, ‘가’라는 주격조사 삽입하여 기능어를 대체한 뒤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서 통역했다(35행 참조). 통역인이 피의자에게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문법적인 실수를 수정하기 위해 기능어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검사에게 한국어로 통역하는 과정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여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 기능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2.2 내적수정

[사례 13] 간투사

- 1 검 그때 술 먹고 갔죠?
 2 통 *Вы пили напитки?*
 당신은 음료를 마셨죠?
 3 피 *Был тогда праздник, да, Пасха была. В церкви я немножко выпила вина.*
 그때 기념일이었어요, 네, 부활절이었어요. 교회에서 와인을 조금 마셨어요.

- 4 통 → 그 당시에 뭘, 종교, 부활절이어서 그때 조금 한잔하고 갔다네요.

[사례 13]에서 검사는 전남편이 살던 집에 술을 먹고 갔었는지 질문했다. 통역인은 술이라는 내용은 누락하고, 음료를 마셨느냐고 통역했고, 피의자는 부활절이어서 와인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후에 통역인은 ‘뭘’라는 간투사를 사용하였고, 이어서 ‘종교’라고 단어를 말하고 ‘부활절’이라는 단어로 내용을 대체하여 수정했다(4행 참조). 이러한 간투사 사용은 화자의 개인의 언어 습관일 수도 있지만, 화자가 의도한 발화 내용이나 단어를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이현주 2009: 50). 위의 예처럼 통역 상황에서도 다음 통역 내용을 떠올리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사례 14] 단순 반복

- 1 검 이진호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2 통 *Как это подробно вы можете рассказать? Он просто сначала говорил, да? Процесс, процесс.*
 그게 어떻게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가 먼저 말을 했어요? 과정, 과정.
 style="text-align: center;">** 중간 생략 **
- 16 통 → 일단은 제가 카페에서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이진호,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거기 이제 고려인이, 고려인이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고려인을 통해서 자기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진호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 14]에서 검사는 피의자가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통역인은 그 내용은 누락하고 그가 먼저 말했는지 묻고, 러시아어로 ‘프로세스, 프로세스’라고 단순 반복하여 통역했다(1, 2행 참조). 피의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되묻는 과정에서 결대화가 발생했고, 통역인은 그 내용을 종합하여 통역하였다(16행 참조). 이때 통역인은 피의자와 전남편이 만난 경위를 설

명하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화자는 발화하는 중에 적절한 후행 발화가 떠오르지 않거나 계획을 변경할 때 이미 발화한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오류 수정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이현주 2009). 분석 결과 통역인이 모국어로 통역할 때 단순 반복을 통한 수정의 비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어 구사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하는 경우 다음 통역 내용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어로 통역할 경우 단순 반복 이외에도 다양한 수정전략을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례 15] 휴지

- 1 김 본인은 그때 아래에 있었죠?
- 2 통 *Она внизу кричала? Ким Наталья она внизу кричала, да?*
그녀는 밑에서 소리쳤죠? 김 나탈리아 그녀는 밑에서 소리쳤죠, 네?
- 3 피 *Я не помню, где она кричала. Я помню, что она нашла Нину. Я прибежала туда.*
그녀가 어디에서 소리쳤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니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 4 통 → 일단 그 제일 밑에(2.0) 그거는 기억이 나질 않고, 일단은 그 곱합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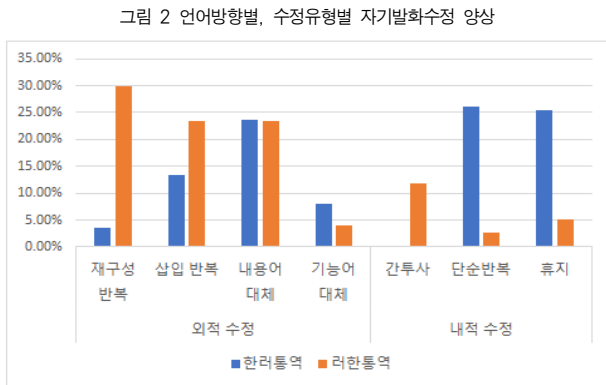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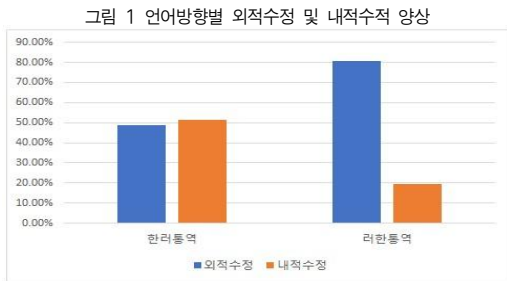
[사례 15]에서 검사는 사건 당일 죽은 딸이 발견되었을 때 피의자가 자신의 집이 아닌 아파트 아래에 있었는지 질문했다(1행 참조). 그러나 검사의 질문과 달리 통역인은 피의자의 친구가 밑에서 소리쳤느냐고 통역했고, 피의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가 딸을 찾아서 그쪽으로 뛰어갔다고 대답했다(2행 참조). 피의자가 했던 대답은 검사의 질문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통역인은 피의자의 대답에 검사의 질문을 덧붙여 통역했다(4행 참조). 그 과정에서 2초간 휴지가 발생했는데, 통역할 내용을 계획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3 소결

통역인의 자기수정 분석 결과 언어방향별 빈도와 유형 차이가 드러났다. 한러 통역에서는 173회, 러한 통역에서는 77회 수정이 발생함으로써 통역인이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훨씬 더 많은 수정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정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러 통역에서는 내적수정과 외적수정의 발생 빈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러한 통역에서는 외적수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언어 방향별로 외적수정의 목적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러 통역에서는 통역인이 자신이 잘못 발화한 러시아어 문법을 수정하기 외적수정을 사용했고, 러한 통역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해당 수정유형을 사용했다. 내적수정이 한러 통역에서 더 자주 발생한 것은 통역인의 언어구사력이 부족하여 반복이나 휴지를 통해 다음 통역 내용을 구상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통역인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통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적수정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통역인의 자기수정 양상을 언어 방향별, 수정 유형별로 나타내면 <표 2>과 같다. 언어 방향별로 외적수정과 외적수정의 비율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고, 자기수정 유형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2> 통역인의 자기발화수정 유형별 빈도

수정 유형	하위유형	한러 통역	러한 통역	
외적 수정	수정 반복	재구성 반복	6(3.5%)	23(29.8%)
		삽입 반복	23(13.3%)	18(23.4%)
	대체	내용어 대체	41(23.7%)	18(23.4%)
		기능어 대체	14(8.1%)	3(3.9%)
합계		84(48.6%)	62(80.5%)	
내적 수정	간투사	0(0%)	9(11.7%)	
	단순 반복	45(26%)	2(2.6%)	
	휴지	44(25.4%)	4(5.2%)	
	합계	89(51.4)	15(19.5%)	
총계		173(100%)	77(100%)	



4.3.1. 외적수정

재구성 반복은 한러 통역에서 6차례, 러한 통역에서 23차례 발생했다. 통역인의 외국어 능력과 통역기술이 부족한 탓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의 원발화와 자신의 통역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문장을 재구성하여 반복하는 경우였다. 해당 수정유형은 러한 통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수정유형인데, 문장을 재구성함으로써 피의자의 진술이 더욱 명확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통역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 사실이 있다’와 같은 표현을 덧붙여 문장을 재구성하기도 하기도 했는데(사례 9 참조), 이는 통역인이 자신의 사법통역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삽입 반복은 한러 통역에서는 23차례, 러한 통역에서는 18차례 발생했다. 언어의 방향과 관계없이 통역인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사건 관련 정보를 삽입

하여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검사의 질문 취지를 강조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이 더욱 명확해졌다. 신문과정에서 검사는 이전 말차례에서 이루어졌던 피의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오역으로 인해 검사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피의자의 진술에서 통역의 오류가 드러나는 경우 자신이 이전에 통역했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사례 2 참조) 사법 통역인으로서의 체면 위험을 줄이고자 했다.

내용어 대체는 언어의 방향과 상관없이 통역인이 자주 사용하는 수정유형으로 한러 통역에서 41차례, 러한 통역에서 18차례 발생했다. 통역인은 러시아어로 통역하면서 러시아어 발음이 유사하여 혼동한 단어를 자신이 판단하기에 더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었고(사례 4 참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통역한 뒤에 그것이 지칭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그 대상이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통역인이 단어나 어휘 등의 내용어 대체를 통한 자기수정을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통역 기술 및 언어 능력 부족으로 피의자가 질문을 통해 통역인에게 수정(타인주도 자기수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말차례에서 직접 수정(타인주도 타인수정)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통역인의 자기수정이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시도’에 그치는 경우였다. 한러 통역에서의 내용어 대체가 문법적, 어휘적 오류를 수정하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된 전략이라면, 러한 통역에서는 보다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기 위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법통역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1 참조).

기능어 대체는 한러 통역에서 14차례 발생했는데 러시아어 문법에 맞지 않게 의문 대명사나 형용사 등을 발화하고 이를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러한 통역에서 발생 건수는 3차례에 불과했는데, 통역인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매끄럽게 전달하기 위해 조사 등의 기능어를 대체하여 수정하는 경우였다.

4.3.2. 내적수정

한러 통역에서 간투사 사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러한 통역에서만 9건의 간투사 사용 사례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통역인이 다음 발화를 계획하거나 수정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단순 반복과 휴지를 통한 수정사례는 한러 통역에서 각각 45차례, 44차례 발생했고, 러한 통역에서 발생한 건수는 각각 2차례, 4차례에 불과했다.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통역인은 다음 발화를 계획 및 구상하거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내적수정 유형인 단순 반복과 휴지를 통한 수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유창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역인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수정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고는 외국인 피의자의 검찰 신문 통역 담화분석을 기반으로 통역인의 자기수정 양상을 살펴보고, 통역인이 검사와 피의자의 발화와 자신의 통역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통역 대응전략으로서의 자기수정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본 사례연구 대상인 통역인은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더 많은 자기수정을 시도했는데, 연구 결과와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역언어 방향별로 수정의 목적이 다르게 나타났다.

통역인이 자신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통역할 때 외적수정에 해당하는 재구성 반복, 삽입 반복, 내용어 대체를 통해 수정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피의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하거나 때로는 수사기관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나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법통역 경험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검사의 질문을 피의자에게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는 외적수정과 내적수정을 사용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외적수정은 통역인의 러시아어 구사력이 부족한 탓에 발생한 러시아어 문법 오류, 잘못 선택한 어휘와 단어를 수정하기 위함이었으며, 내적수정은 사법통역을 하기에는 통역기술이 부족하여 다음 통역 내용을 구상, 계획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한러 통역에서는 자기수정이 자신의 부족한 어학 및 통역실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역인의 대응전략으로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통역인의 한러 통역에 나타난 수정은 외국어 학습자의 수정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수정양상을 분석한 김평강의 연구(2013)에 따르면, 내적수정(59%)의 비율이 외적수정(41%)보다 높고, 구체적으로는 단순 반복을 통한 수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고에서 분석한 통역담화에서도 통역인이 외국어인 러시아어로 통역할 때, 내적수정의 비율이 근소하지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통역인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수정전략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통역인이 전문통역사가 아니라는 점과 직결되며,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법통역을 하기에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셋째, 수정의 시도가 곧 통역의 정확성을 제고시키지 않는다.

분석 결과 한러 통역에서 173차례, 러한 통역에서는 77차례 자기수정이 이루어졌다. 일견 통역인이 정확하게 통역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수정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수정이 이루어진 원인을 살펴보면 한러 통역에서는 통역인의 러시아어 구사력이 부족하여 자신이 발화한 통역 내용을 문법적, 어휘적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러한 통역에서는 통역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자신의 사법통역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이러한 수정의 시도가 정확성이라는 사법통역 규범을 준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지만, 수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일어났다. 다시 말해, 통역인이 사법통역에 필요한 어학능력과 통역인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정이 단순히 ‘시도’에 그칠 뿐, 통역의 정확성을 제고시키지 못했다.

비전문가의 피의자 신문 통역 담화를 바탕으로 자기수정 양상을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개선을 통해 언어능력과 통역기술을 갖춘 통역사를 선발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통역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본 연구는 사법통역 중에서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역(수사통역)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실제 통역담화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 방법론적으로도 이제까지 사법통역 분야에서 적용된 바 없는 자기발화수정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적용함으로써 언어학과 통역학의 학제 간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단일 사례연구에 불과하므로, 다른 언어 통역인이 참여하거나 다른 사법통역 현장에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비전문가 통역인의 통역품질과 수사과정 커뮤니케이션에 갖는 함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전문통역사의 자기수정 현상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대화통역 상황에서 통역대응전략 내지 담화관리 차원의 수정현상 등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정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통역 품질 차원에서도 수정 현상을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지연 (2016) 「순차통역에서 나타나는 자기발화수정 양상 연구: 학부생의 한·독 순차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4): 1-24.

김평강 (2013) 「독화와 대화에 나타난 한국어 일본어 학습자의 자기발화수정의 유형」, 『일본연구』 56: 225-241.

이미경 (2012) 「동시통역과정에서의 오류와 전략적 대응: 한영동시통역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27-151.

이유진 (2019) 사법통역 제도화에서 전문화로 - 사법통역인과 사법통역인 선정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3), 117-148.

이지은 (2012)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이지은 (2017)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이현주 (2009) 「자기발화수정의 언어적 유형 연구」, 『우리어문연구』 33: 31-64.

홍서연 (2019) 『경찰통역 담화연구 - 한러 대면 및 전화통역 담화의 대화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rtłomiejczyk, Magdalena (2004) 'Simultaneous Interpreting A-B vs B-A from the Interpreter's Standpoint', in Gyde Hansen, Kirsten Malmkjær and Danie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39-249.

Bartłomiejczyk, Magdalena (2006) 'Strategies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Directionality', *Interpreting* 8(2): 149-174.

Besien, Fred Van and Chris Meuleman (2004) 'Dealing with Speakers' Errors and Speakers' Repair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 Corpus-based Study', *The Translator* 10(1): 59-81.

Biemacka, Agnieszka (2019) *Interpreter-mediated Interactions of the Courtroom: Naturally Occurring Data-based Study*, Berlin: Peter Lang.

Dailidénaité, Alina (2009) 'Directionality: Types and Frequency of Repair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Vertimo Studijos* 2: 9-25.

Darò, Valeria, Sylvie Lambert and Franco Fabbro (1996) 'Conscious Monitoring of Attention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terpreting* 1(1): 101-124.

Kalina, Sylvia (1998) *Strategische Prozesse beim Dolmetschen: theoretische Grundlagen, empirische Fallstudien, didaktische Konsequenzen*, Tübingen: Gunter Narr.

LaSalle, Lisa R. and Edward G. Conture, (1995) 'Disfluency Clusters of Children Who Shutter: Relations of Stutters to Self-repai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 965-977.

Lee, Jieun (2013) 'A Study of Facework in Interpreter-mediated Courtroom Examination', *Perspectives* 21(2): 82-99.

Lee, Jieun (2014) 'A Pressing Need for the Reform of Interpreting Service at Asylum Setting: A Case Study of Asylum Appeal Hearings in South Korea', *Journal of Refugee Studies* 27: 62-81.

Lee, Jieun (2015) 'How Many Interpreters Does it Take to Interpret the Testimony of an Expert Witness?: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Expert Witness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28(1): 189-208.

Lee, Jieun (2017)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Witness Statement: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8(2):

194-205.

- Lee, Jieun and Hong, Seoyeon (2020) 'Help Me to Help You to Help Me: A Conversation Analytic Study of Other-initiated Repairs in a Case of Korean-Russian Interpreter-mediated Investigative Interviews in South Korea', *Perspectives* doi.org/10.1080/0907676X.2020.1841811.
- Levelt, Willem JM. (1983) 'Monitoring and Self-repair in Speech', *Cognition* 14: 41-104.
- Magnifico, Cédric and Bart Defrancq (2019) 'Self-repair as a Norm-related Strategy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Gendered Approaches to Interpreting', *Target* 31(3): 352-377.
- Nakane, Ikuko (2014) *Interpreter-mediated Police Interviews: A Discourse-pragmatic Approach*, London: Palgrave MacMillan.
- Petite, Christelle (2005) 'Evidence of Repair Mechanisms in Simultaneous Interpreting: A Corpus-based Analysis', *Interpreting* 7(1): 27-49.
- Postma, Albert and Herman Kolk (1993) 'The Covert Repair Hypothesis: Prearticulatory Repair Processes in Normal and Stuttered Disfluencies', *Journal of Speech & Hearing Research* 36(3): 472-483.
- Schegloff, Emanuel A., Gail Jefferson and Harvey Sacks (1977) 'The Preference for Self-correction in the Organization of Repair in Conversation', *Language* 53: 361-382.
- Shen, Mingxia and Junying Liang (2019) 'Self-repair in Consecutive Interpret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Student Interpreters', *Perspectives* doi.org/10.1080/0907676X.2019.1701052.
-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 Longman.

[Abstract]

**The Use of Self-Repairs by Interpreters in Investigative Interviews: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Korean-Russian Interpreter**

Lee, Jieun & Hong, Seoyeon
(Ewha Womans Univierstiy,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an interpreter's use of self-repairs as a coping strategy to address his lack of Russian proficiency. A discourse analysis was undertaken of a video recording (157-minutes in length) of a prosecutor's interview of a suspect from a Russian-speaking background. Self-repairs, which refer to a speaker correcting their own utterances without external stimuli, occur when a speaker detects discrepancies with the communicative intention or a failure to meet the criteria of production (Schelgoff et al. 1977; Magnifico & Defrancq 2019). Adapting the self-repair categorizations proposed by Postma and Kolk (1993), LaSalle and Conture (1995) and Lee (2009),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preter's self-repair attempts in interpreting and tallied the frequencies of different types of self-repai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untrained interpreter's self-repairs were essential to the interpreter-mediated communication, particularly because of his limited interpreting competence. His self-repair attempts, which were numerous and frequent, do not reflect those displayed by professional interpreters' and indeed are closer to those displayed by language learners. The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the interpreter's self-repairs differed depending on the directionality of his interpreting in terms of frequency and purposes. The findings also showed that despite numerous self-repairs, the communication problems that arose in the interview were not successfully resolved due to the interpreter's lack of interpreting skills, including his low-level language proficiency. Th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gaging competent interpreters when interviewing suspects from non-Korean speaking backgrounds.

- ▶ Keywords: legal interpreting, interpreting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self-repair, coping strategy, untrained interpreter
- ▶ 주제어: 사법통역, 수사통역, 자기발화수정, 통역대응전략, 비전문가 통역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커뮤니티통역, 법률번역, 통번역교육

홍서연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유럽중남미학부 러시아학전공 강사

oliya@hanmail.net

관심분야: 사법통역, 커뮤니티통역, 사법통역교육, 대화분석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8일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30일